

국한성 두경부 혈관 중심위 림프종에서 화학방사선병용치료법과 방사선치료단독요법의 비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방사선종양학교실, 내과학교실,¹⁾ 이비인후과학교실²⁾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방사선종양학교실,³⁾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방사선종양학교실⁴⁾
 장세경* · 김귀언 · 이상욱 · 박희철 · 표홍렬 · 김주향¹⁾
 문성록²⁾ · 이형식³⁾ · 최은창⁴⁾ · 김광문⁴⁾

목적: 국한성 두경부 혈관 중심위 림프종에서 화학방사선병용치료법과 방사선치료단독요법의 치료성적을 비교하여 화학방사선병용치료법의 임상적 유용성 여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76년부터 1995년까지 연세암센터에서 병기 I, II기의 두경부 혈관 중심위 림프종으로 치료받은 143예를 대상으로 하였다. 방사선치료단독(104예)의 경우 20~70Gy(중앙값 50Gy)를 병소 부위에 국소적으로 조사하였고 화학방사선병용치료(39예)의 경우에는 1~6회(중앙값 3회)의 화학요법을 시행한 후 병소 부위에 국소적으로 방사선치료를 시행하였다. 치료방법에 따른 반응율, 재발양상, 후유증, 생존율 등을 비교하여 보았다.

결과: 방사선치료단독요법과 화학방사선병용치료법의 완전관해율은 각각 69.2%와 66.7%이었고 반응율은 각각 89.2%와 84.6%로 높게 나타났으나 국소재발이 재발양상

의 가장 흔한 원인이었고, 치료방법에 따른 재발양상의 차이는 없었다. 치료방법에 따른 환자들의 순응도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혈구포식세포증후군, 폐혈증, 난치성 출혈, 2차암 등의 발현 빈도는 화학방사선병용치료법을 시행한 경우에 방사선치료단독요법을 시행한 경우보다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5년 생존율은 각각 38.3%와 35.4% 이었고, 5년 무병 생존율은 32.4%와 26.9%로 비슷하였다. 완전관해 여부가 단변량과 다변량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예후인자였고 화학요법의 병용 여부는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결론: 국한성 두경부 혈관 중심위 림프종에서 방사선치료단독요법에 비해 화학방사선병용치료법의 유용성이 입증되지 못하였다.

중심 단어: 방사선치료 · 화학방사선병용치료법 · 혈관 중심위 림프종